

거리두기 풀리자 문화투자 봇물… 카드업계 ‘즐거운 비명’

협업으로 수익 창출, 브랜드 제고
신한 그랜드민트 페스티벌 후원
22~23일 개최… 티켓 5% 할인

현대 지난달 ‘슈퍼콘서트’ 개최
이달 이태원서 재즈음악 전시회

KB국민 인천 펜타포트 후원
KB페이로 티켓 구매시 15% 할인

지난 7월과 8월 재확산하던 코로나19가 이달에 감소세를 나타내면서 카드업계에 또다시 화색이 돌고 있다. 거리두기 해제를 전후로 문화사업에 투자를 진행했기 때문이다.

13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올해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집합제한 등이 사라짐에 따라 문화사업 투자가 이어지고 있다. 대규모 인구가 밀집하는 록 페스티벌에 후원사로 참여하는 것부터 자체 전시회 개최까지 다양하다.

카드사가 문화사업에 뛰어드는 이유는 협업을 통한 수익 창출은 물론 브랜드 가치 제고까지 쟁기는 일석이조 사업이기 때문이다. 카드업계는 수익 다각화를 꾀하기 위해 다분야에서 사업을



신한카드가 매인 후원사로 참여한 '그랜드 민트 페스티벌 2022' 포스터.



KB국민카드가 후원사로 참여한 '2022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 모습.

/뉴스

소화하고 있는 만큼 문화사업 투자 또한 먹거리의 일환이다.

가장 경계하고 있는 것은 코로나19 감염 확산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재시행으로 소비 생활이 위축되면 애써 준비한 사업이 물거품으로 돌아갈 수 있어서다. 확진자가 증가하면 전반적인 소비가 줄어 들고 문화사업도 함께 무너진다.

실제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가파르게 상승한 지난 7월에는 업종 전반에 걸쳐 소비가 주춤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반

면 거리두기 해제 다음 달인 올해 5월 카드 승인 실적은 두 달 전인 3월 대비 2배 넘게 상승했다. 이어 지난해 매달 전년 동월 대비 한 자릿수 증감률을 보이던 문화 산업 소비는 올해 들어 30% 가까이 상승했다.

신한카드는 그랜드 민트 페스티벌 2022에 매인 후원사로 참여한다. 내달 22일부터 이틀간 진행하는 이번 축제는 신한카드로 결제하면 티켓 가격을 5% 할인해 준다. 또한 메인무대의 이름은 '신한카드 민트 브리즈 스테이지'로 브

랜드 가치까지 높인다.

현대카드는 지난달 슈퍼콘서트를 통해 빌리아일리시를 한국으로 불러들였다. 티켓은 20분 만에 전석 매진됐다. 아울러 이달에는 이태원에서 재즈음악 전시회를 진행하고 있으며 내달 14일부터는 3일간 공연과 전시, 토크콘서트 등을 한 번에 담은 '다빈치 모텔'을 개최할 예정이다.

현대카드 관계자는 “이용자와 공유할 수 있는 접점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며 “문화사업은 브랜드를 보다 많은 고객들

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라고 밝혔다.

KB국민카드는 올해 인천 펜타포트 록 페스티벌에 후원사로 참여했다. 13만 명의 관객이 참여한 이번 축제에서 KB페이를 통해 티켓을 구매한 관객에게는 15%를 할인 제공했다. 이어 행사장에서 물품을 구매할 때는 국민카드와 KB페이 앱을 통해서 구매하도록 만들어 이용률을 높였다.

카드사들의 문화사업 투자는 항후 계속될 예정이다.

삼성카드는 한국국제아트페어(kiaf)에 스폰서 및 부스 운영을 진행했다. 세계 3대 아트페어에 참여해 브랜드 가치 향상에 성공했다는 의견이다. 이번 아트페어 성공에 힘입어 추후 이용자의 취향에 맞는 문화 마케팅 진행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다. 롯데카드 또한 올해 문화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논의 중이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문화사업에 관한 투자를 축소했지만 추후 문화예술 행사 참여를 통해 기업 이미지 개선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산 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금리인하요구권 거절 ‘정당 사유’ 알려야

5대 은행 평균 수용률 41.5% 불과
거절사유 ‘내부심사에 따른 결론’
금융사 “신용도 올라야 금리인하
연봉상승·부채감소 등 동반돼야”

금리인상으로 이자가 무섭게 오르고 있어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다만 차주들은 사유도 모르고 거절당하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13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상반기 금리인하요구 평균 수용률은 41.5%다. 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소비자 60%가 거절된다는 이야기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 받은 사람이 취업, 승진 등의 이유로 신용상태가 개선되면 금융사에 금리를 인하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권리다.

다만 신용등급이나 연봉 등 소득 조건이 개선됐음에도 금리인하에 실패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다.

직장인 A씨는 지난 7월 한 시중은행에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했다. 신용대출 이자율이 지난해 2월 연 2.2%에서 올해 7월 연 4.91%까지 치솟았기 때문이다. A씨는 지난해 11월 이직해 연봉이 1000만원 넘게 뛰었기 때문에 당연히 승인될 것을 예상했다.

하지만 2개월이 지나도록 은행에서는 연락이 오지 않았고 결국 지점에 방문해 거절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통상적으로 금융사는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요구 수용 여부 및 그 사유를 신청자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신청을 마쳤다면 10일 동안 기다리면 된다.

당시 은행 관계자는 “요건에 충족하지 못해 거절했습니다. 개선 후 다시 신청해주세요”라는 말만 남기고 어떤 개선이 필요한지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A씨는 설명했다.

A씨 이외에도 거절 사유를 모르고 통보받은 차주들이 많아 금융당국의 대

출 거절 사유 권고 실행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금리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차주의 신용상태 개선 기준은 각 금융사 별 내부 기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금융사가 ‘내부심사에 따른 결론’으로 통보하게 되면 차주들은 대처 방법이 없다.

금융사는 사용하고 있는 내부신용평가시스템(CSS)은 차주의 신용도가 변경될 만큼의 연봉 인상이나 대출실적 변화가 있었는지 여부를 심사하지만 연봉이 얼마나 올라야 금리인하가 가능 한지 제시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하는 차주들의 경우 연봉 인상이 있었더라도 정도가 크지 않아 CSS상 신용도에 변동이 없었다면 금리인하가 되지 않는다”며 “연봉만 오른다고 수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부채 감소와 신용등급이 같이 상승해야만 수용 확률이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

SC제일은행, 매일 2.4% 금리 이벤트

SC제일은행은 오는 29일까지 일본 리저축예금(MMDA)에 1억원 이상(최대 20억원이내) 가입하는 첫 거래 고객에게 60일간 매일 잔액에 대해 최고 2.4%의 금리 혜택을 주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일본리저축예금은 수시입출금식 저축성 예금으로 매일의 잔액에 따라 금리를 차등 지급한다.

예금을 많이 예치할수록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어 주로 고액 자산가들이

돈을 맡기는 ‘파킹통장’으로 불린다.

이번 이벤트는 이달 말까지 SC제일은행 영업점에서 일본리저축예금에 가입하는 첫 거래 고객 대상으로 진행되며 신규 가입일로부터 최장 60일까지 특별금리를 제공해준다.

이벤트 금리를 적용하는 개인별 가입한도는 최소 1억원에서 최대 20억원이며 총 모집한도 1000억원이 소진되면 이벤트는 조기 종료된다.

/구남영 기자 koogjia_tea@

NH농협은행에서 주택청약을 신청하면 선물로 쌀을 제공한다.

NH농협은행은 주택청약종합저축 신규가입자를 대상으로 한국농협 팔도미를 제공한다고 13일 밝혔다.

2004년 1월1일 이후 출생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이번 행사는 선착순 6000명에게 팔도미를 제공한다. 비대면 신규가입자는 이벤트 페이지 내 응모하기 절차를 밟아야 한다.

/김정산 기자

대한민국 No.1 프리미엄 PB 브랜드 론칭



(왼쪽부터) 김성현 KB증권 사장, 박정림 KB증권 사장, 광고모델 이영애, 윤종규 KB금융그룹 회장, 이재근 KB국민은행 은행장, 최재영 KB국민은행 최재영 전무가 지난 6일 열린 'KB GOLD & WISE the FIRST' 오픈 기념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KB금융

KB금융, 국내최대 종합자산관리센터 오픈

‘KB 골드&와이즈 더 퍼스트’
총 9층 규모 1400여개 금고 갖춰

KB금융그룹이 고객의 종합자산관리서비스를 위해 앞장선다.

KB금융은 지난 6일 ‘KB 골드&와이즈 더 퍼스트(GOLD&WISE the FIRST)’ 기념식을 갖고 국내 최대 규모의 종합자산관리센터 ‘KB GOLD&WISE the FIRST’를 오픈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광고모델 이영애, 윤종규 KB금융 회장을 비롯한 임직원 등이 참석했다. 기념식은 제11호 태풍 ‘힌남노’의 북상으로 인한 재난 상황을 고려해 간략화

계 자체 내부행사로 진행했다.

‘KB GOLD&WISE the FIRST’는 지하 2층, 지상 7층으로 구성된 총 9층 규모의 종합자산관리센터다. 총 15개의 고객상담실과 1400여 개의 최신식 대여금고를 갖추고 있으며, 센터 전체 내부 공간은 ‘책과 예술(Book&Art)’이라는 콘셉트로 구성했다.

고객이 센터에 들어섰을 때 가장 먼저 보이는 2층 높이의 대형 미디어 아트월은 ‘KB GOLD&WISE the FIRST’를 대표하는 조형물이다. 유명작가들의 예술작품들이 디지털 영상 형태로 구현되며 고객들을 맞이한다.

/백지연 기자 wldus0248@

우리은행 ‘환영해요 우리’ 대고객 이벤트

우리은행은 ‘우리WON기업’ 첫 가입고객을 대상으로 ‘환영해요 우리’ 대고객 이벤트를 오는 12월 16일까지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우리WON기업’을 처음 가입하고 로그인한 법인과 개인사업자 고객이 이벤트에 응모하면 선착순

으로 총 900명에게 경품을 제공한다. 응모 시기에 따라 9월에는 ▲SK모바일주유권 2만원(300명), 10월에는 ▲BHC 치킨 쿠폰(300명), 11월에는 ▲신세계 이마트 상품교환권 2만원(200명), 12월에는 ▲파리바게뜨 교환권 2만원(100명)을 증정한다.

/이승용 기자